

배불 주장 구양수 등 설송 스님 문집 읽고 불교 귀의

<33> 송대(宋代) 사대부의 배불(排佛)과 귀불(歸佛)(1)

송대는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황권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전제군주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에 따라 사상적으로 전제군주정치를 지지해주는 '유학(儒學)'을 극도로 중시했고, 또한 유학의 이념에 의해 관료들을 선발하고자 당대(唐代)에서 확립된 과거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과거제도는 지방의 중소 지주들과 평민들에게 권력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줬지만, 당대에서는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매년 진사(進士)에 급제하는 인원이 1년에 많게는 30~40명, 적은 경우는 10명 미만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제도는 점차 확대돼 진사의 경우 1년에 500~600명이 급제했다. 진사 이외에 성시(省試), 전시(殿試) 등 다양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등용되면서 송대에서는 문관(文官) 위주의 방대한

를 철저히 배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폐불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학에 경도된 수많은 사대부들을 불교로 전향시킨 이가 운문종(雲門宗)의 설송(契嵩; 1007~1072) 스님이다. 총 19권으로 이루어진 설송 스님의 <심진문집(潛津文集)>에는 전편에 불교와 유학이 서로 일치함을 밝히고 있다. <심진문집>은 철저히 '고문(古文)'을 근거로 "꼭 넓게(불·유·도의) 경전들을 인용해 삼가의 가르침이 일치되고, 서로 보충이 될을 논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덕선생공재독서지(昭德先生那齋讀書志)> 권1)

설송 스님은 특히 '효(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했다. 불교의 출가는 부모를 버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훼손(삭발)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위배하고 있다는 유학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



그림 · 김홍인

송대 유교 중심으로 불·도 결합하는 삼교일치 경향

주돈이 등 북송오자 선학 이론 유학과 자연스레 융합

사대부 계층이 형성됐다.

송대 초기 사대부들의 특징은 황제들의 중유(重儒)정책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불교와 도교를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당대로부터 중국의 사상계가 불·유·도의 '삼교융합' 혹은 '삼교일치'를 제창했던 사상적 전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대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도 양자와의 '일치'가 제시됐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도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학(理學)'의 완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불교와 도교는 점차로 사상적 주류에서 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 초, 태조의 정책에 따라 유학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한편으로 유학의 '부흥'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이 쇠퇴한 원인을 불교의 득세로 파악해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을 벌였다. 구양수(歐陽修; 1007~1072) 거사의 문집에 따르면, '장표민, 황우우, 이태백' 등 대다수 학자들이 불교를 폐하자는 주장을 했다(<구양문공공문집(歐陽文忠公文集)> 권17). 또한 손복(孫復)은 <유육(儒略)>, 석가(石伽)는 <괴설(怪說)>, 호인(胡寅)은 <송정론(崇正論)> 등을 전술해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불교

다. 스님의 <문집>에는 <효론>이 12장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의 <효경(孝經)>은 바로 부처님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의도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 "무릇 효는 하늘의 길이며 땅의 정의이며 사람의 행할 바다. 지극하고 큼이며, 효도의 길이여!" "무릇 효는 모든 성현의 존중하는 바이며, 불교는 더욱 중시한다"라고 해 극도로 '효'를 강조했다. 또한 "오계는 첫째, 불살생이고, 둘째, 불투도이고, 셋째, 불사음이고, 넷째, 불망어이고, 다섯째, 불음주이다. 대저 불살생은 인(仁)이요, 불투도는 의(義)요, 불사음은 예(禮)요, 불음주는 지(智)며, 불망어는 신(信)이니, 이 다섯 가지 수행은 곧 그 사람을 이루며, 그 어버이를 드러내니, 또한 효도가 아니겠는가?"(<심진문집> 권3 <효론>)라고 유학의 '오상(五常)'을 불교의 '오계'와 '효'를 연결시켰다. 이러한 설송 스님의 '효'는 남북조 시기 유협(劉勰)이 <멸혹론(滅惑論)>에서 "불가의 효도는 포괄하는 바가 폭넓고 심원하다. 그 이치는 마음으로 말미암고, 결립 없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효'는 유가의 <효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양명(立身揚名)함이 효의 끝"이라는 것과는 다른 '대효(大孝)'라는 주장이다.

설송 스님은 당시 사대부들이 유학에 경도돼 불교를 비판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승려도 필요치 않고, 선비(儒)도 필요치 않으며,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 이것과 저것은 정(情)일 뿐이고, 승려와 선비는 자취(迹)일 뿐이다. 성인(聖人)이 자취를 드러낸 것은 근본[本]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성인이 정을 행함은 성품(性)에 따를 일 뿐이다. 근본을 보존함이지, 자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심진문집> 권2, <광원교(廣原教)>)라고 과감하게 논했다. 이로부터 설송 스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데, 불교나 유학이니 하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성(自性)'을 찾자는 것으로 선승다운 기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설송 스님은 직접 교류를 통해서 설득하기도 했지만, 서신을 통해서도 배불론자들을 설득했다. <심진문집>의 권9~10에는 위로는 황제와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지현(知縣)에 이르는 관료사대부에게 보낸 서신이 43통이 실려 있다. 이러한 서신에는 논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과 작품들에 대한 품평 등이 담겨 있는데, 스님의 호법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승상이었던 한기(韓琦)가 스님의 문집을 읽고서 감탄해 구양수에게 보였다. 당시 구양수는 스스로 문장의 대가로서 자임해 천하에 사표(師表)를 내었던 차에 스님의 문집을 읽고서 너무

놀라서 한기에게 "승려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니, 날이 밝으면 마땅히 함께 찾아갑시다"라고 권했다. 다음날 구양수 등은 스님을 만나 해가 저물도록 함께 논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인천보감(人天寶鑑)>). 이후 구양수는 스님께 귀의하고, 스스로 '육일거사(六一居士)'라는 호를 지었다.

이러한 설송 대사의 노력은 유학자들의 '배불'의 주장을 종식시켰다. 처음에 배불을 주장했던 구양수와 한기 이외에 부림(富弼), 문언박(文彦博) 등의 유학자들을 불교에 귀의케 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인종(仁宗)으로부터 <심진문집>을 입장(入藏)(<대전장> 52책에 수록)토록 했고, 대사의 입적 후에 '명교대사(明教大師)'의 시호를 받았다.

송초 유학의 '부흥'에 있어서 '배불'의 상황을 맞아 설송 스님의 노력은 유학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불교와 유학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내려진다. 이 점은 북송에서 '이학(理學)'의 건립에 토대를 만든 이른바 '북송오자(北宋五子)'인 주돈이(周敦頤)·소옹(邵雍)·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頤) 등이 불교, 특히 선학(禪學)의 이론을 유학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것으로부터 확인된다. 북송오자 가운데 주돈이와 정호·정이 형제는 <거사분등록>과 <명공법회지(名公法會志)> 등에 전기가 실릴 정도로 불교계 사로서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돈이 거사는 황종염(黃宗炎)의 <태극도변(太極圖辨)>에서 "목수(穆修)는 무극도(無極圖)로써 주돈이에게 가르치고, 주돈이는 수애(壽蘊) 선사에 가서 선천도(先天圖)의 계송을 얻었다"고 적었다. 중봉(中峰) 선사 문하의 호장유(胡長孺) 거사가 지은 <대동론(大同論)>에서도 "주돈이의 전함은 북고산(北固山) 화림사(鶴林寺) 수애 선사로부터 나왔다"고 기술했다. 또한 <거사분등록>의 주돈이 거사 전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의 이 미묘한 마음은 황룡(黃龍) 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불인(佛印) 선사에게서 밝힘을 받은 후 <주역(周易)>의 이치를 확연히 통달했다. 상총(常聰) 선사의 열고 닫음으로 탁마함이 없었다면 인과 밖이 흰히 밝아질 까닭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신의 학문적 배경이 불교에 있음을 인정했다.

송초의 관료 사대부들은 유학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불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설송 스님과 같은 존속(尊宿)의 호법활동으로 점차 유학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 특히 당시 유행하던 조사선(祖師禪)의 사상을 융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송대 관료사대부들 중심으로 하는 거사불교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송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제23회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신진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로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10년이 경과하고 수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 후보자계승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분회 소장양식)

- 나. 자필이력서 (사진 첨부)
- 다. 학력증명서
- 라. 경력증명서
-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 사. 추천서 3통 (총장, 대학원장, 기관및단체의 장, 역대 불이상수상자)

■ 접수마감 2009년 5월 31일까지

■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 심사위원회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드레비앙 148호
불이상담당자 앞 (010-3772-8179)

不二會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 입제 불공의식 ○ 회염시식	1. 가정한택의식	中央佛敎大學 宗 釋 慧 草
2. 삼우제 불공의식 ○ 심우제시식	2. 사무실고사의식	太古 佛敎 仙 樂 寺 方 丈
3. 초재 불공의식 ○ 지장시식	3. 자등차고사의식	大 德 林 大 德 宗 長
4. 이재 불공의식 ○ 보현시식	4. 선반고사의식	佛 光 寺 方 丈
5. 삼재 불공의식 ○ 문수시식	기타편	宗 釋 慧 草
6. 사재 불공의식 ○ 미륵시식	삼재살해소식의 예를 들 수 있다.	佛 光 寺 方 丈
7. 오재 불공의식 ○ 보문시식		
8. 육재 불공의식 ○ 오음시식		
9. 칠재 불공의식 ○ 관음시식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 농협 803-02-752331 예금주: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김묘경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약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